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소식지
치읗치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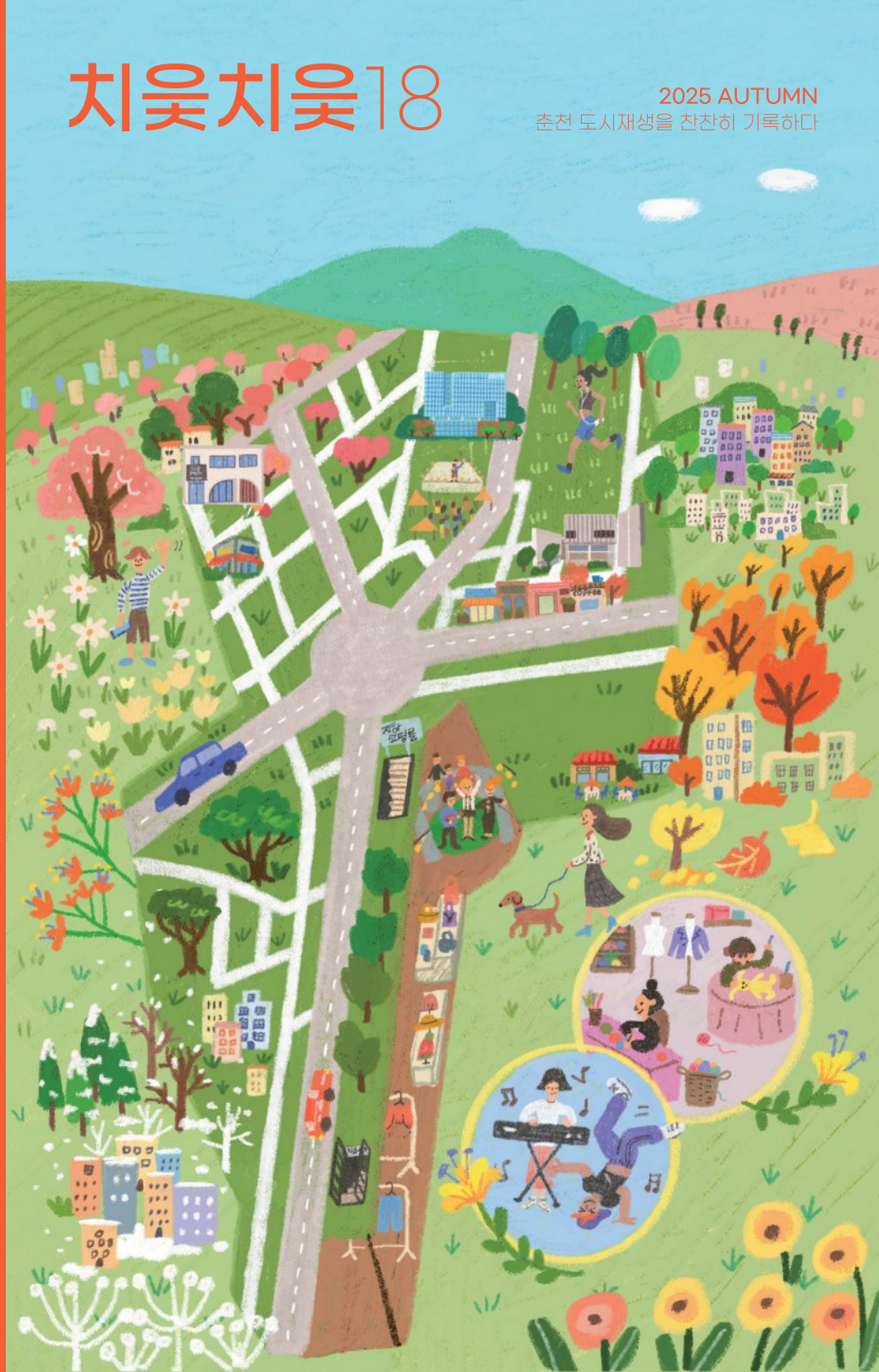
uris.chuncheon.go.kr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5 AUTUMN 치읗치읗 18 춘천 도시재생을 찬찬히 기록하다

치읗치읗18

2025 AUTUMN
춘천 도시재생을 찬찬히 기록하다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춘천시청
조운월컴센터
요선동
상상어울림 센터
수공예작가작업실
명동거리
춘천지하상가
닭갈비골목
상점거리
청파년 댄스 / 밴드연습실

06

조운소양

상상으로 물들인 지하도상가!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 아카데미'





상상 아카데미

16

춘천시

도시, 재생 Play-Replay

스트리트리포터 두번째 기록에 대하여



2025 스트리트리포터

40

춘천시

포토에세이

골목의 빛을 따라 걷다



교동 도시재생 공유공간

48

춘천시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마을과 마을을 잇다, 마음과 마음을 잇다



풍물커피

26

약사명동

약사명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작은 연결로 되살아나는 활력의 이야기



약사천사람들

32

조운소양

칠보공방 지니, 지하도상가의 색을 입히다

춘천 지하도상가에서 피어나는 로컬 공예 이야기



「춘천 오봉도」

60

춘천시

도시와 사람, 그리고 춘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그려본
우리의 도시 이야기



요선동

66

언론보도

- 강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18일 개최
- 강촌리 교육·관광 협력해 활력 시동
- 춘천시, 낭만 가득 버스킹 '틈새콘서트 시즌5'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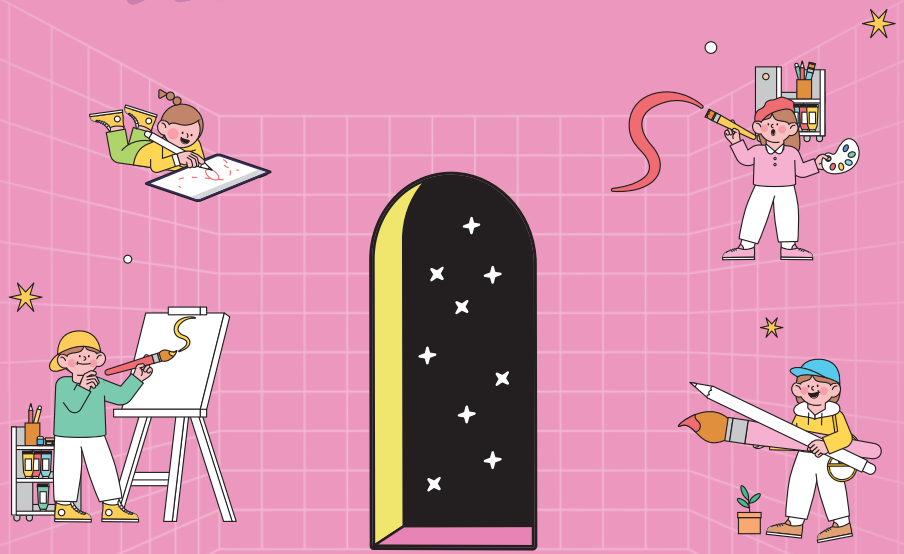


강촌리 교육관광 협력해 활력 시동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 아카데미'

No.161

상상으로 물들인 지하도상가!



- 상상 아카데미
- 지하도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일대
- 2025. 7. 19.(토) ~ 8. 9.(토)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청소년 주도형 지역 공간 개선 프로젝트

글/사진 성현아





춘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쳤을 지하도상가. 그 익숙한 공간이 올여름, 청소년들의 상상력으로 특별하게 변신했어요. 7월부터 8월까지 총 4주 동안 진행된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상상 아카데미'는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시즌을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제 공간을 바꾸는 창작 활동으로 더욱 풍성하게 구성되었답니다.

1주차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다!

프로그램은 공간을 직접 탐방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팀을 나누어 지하도상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자의 시선으로 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했답니다. “이 큰 광고판은 왜 사용되지 않고 있나요?”, “어두운 벽에서 불빛이 나오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갈 때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등의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공간 속에서 누구보다 날카롭고 창의적인 시선으로 불편한 점과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직접 발견해냈습니다. 그저 공간을 둘러보는 활동을 넘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2주차

로컬 크리에이터와 손잡고 아이디어 구체화

이번 프로젝트에는 춘천에서 활동 중인 로컬 크리에이터 4명이 함께해 주셨어요.

최유나 작가님 꽃채락

정진희 작가님 LE SAVON 르 사 봉

고혜정 작가님 센트정원 SCENT GARDEN

이덕용 작가님 BIG PAINTING

작가님들은 각자의 브랜드와 작업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방법을 함께 고민했답니다. 어떤 재료가 적합할지, 공간에서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만큼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3주차

손끝에서 시작되는 상상

본격적인 제작 시간! 청소년들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아이디어를 직접 만져보고, 테스트하고, 시범 제작해 보며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더 하고 가도 되나요?” 등의 수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을지는 몰라도, 어느새 주도적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창작자로 성장하며 스스로 몰입하고 끝까지 해내려는 진지한 태도는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4주차

우리가 만든 변화가 스며든 지하도상가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의 결과물을 실제로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팀별로 작업을 마무리하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와주고, 각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협력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비어 있었던 광고판은 감각적인 포토존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쉬어가던 공간은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힐링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또 직접 제작한 천연비누들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었고, “이곳은 청소년들의 공간이에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디자인은 연습실 벽면을 새롭게 채우며, 공간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변화되었답니다.





청소년들의 손으로 완성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익숙한 공간에 청소년들의 시선을 통해 변화하는 특별한 경험들이 담겨있답니다. ‘상상 아카데미’를 통해 변화된 공간은 지금도 지하도상가 곳곳에 남아 있어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노력, 그리고 지역과 함께한 ‘상상력’이 담겨 있답니다. 이번 주말, 지하도상가를 천천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이 여름의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

No.162

스트리트리포터 두번째 기록에 대하여

도시, 재생
Play-Replay



글 이경은 사진 소양하다

작년 12월, 스트리트리포터 1기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지난 7개월간 쌓아 올렸던
이야기들을 쭉 돌아봤어.
하나하나 글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
스트리트리포터에게,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지.
133개의 이야기가 여기에 남아있으니 가끔 놀러 오라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말이야.

해가 바뀌고 2월부터
스트리트리포터 두 번째 이야기를 상상하기 시작했어.
그림이 조금 그려지게 되었을 때,
〈소양하다〉와 미팅을 시작했고 서로 그림을 맞춰봤지.
이번에도 그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당겼어.

1기 때에는 7개월간 매월 1번씩 정기회의를 열었고,
강의와 회의와 기록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지.
이번엔 방식을 좀 바꿔보기로 했어.
2개월간 매주 한 번씩 만나 필요한 역량을 먼저 갖추고,
2개월간 집중적으로 기록 작업에 매진하기로 했어.
기록 작업에 매진하기 전에 스트리트리포터가
서로 더 친해지고, 또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습득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기록물들은 책으로도, 전시로도 엮어보기로 했어.
우리의 기록이 더 멀리, 더 오래 번져나가길 바랐어.

조운동네의 상징 컬러를 닮은 파란색 배경에,
책을 닮은 반짝이는 건물을 한가운데에 배치한
포스터가 그려졌어.
한가운데 서있는 건물에는 스트리트리포터라고
야무지게 간판도 달렸지.

이번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몇 분이나 오실까,
그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설레는 마음을 품고 공지를 올렸어.

2025 춘천도시재생 SNS홍보단
〈스트리트리포터 2기〉를 모집합니다.



커리큘럼

도시를 관찰하고 기록해온 전문가들과 함께
'탐색, 기획, 편집, 기록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도시재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을 길러냅니다.



일시 2025. 7. 10.(목) ~ 8. 28.(목) / 8회
장소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중앙로 33, 다84호)

차수	주제	프로그램 내용	진행자(전문가)
1 7.10.(목) 18:30~21:00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식	[Opening: 첫 페이지를 여는 시간] - 위촉식 진행 및 사업 소개	윤 한 대표 소양하다
	도시재생 이해하기	[Page1.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 문화·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도시재생사업 - 춘천 도시재생사업 지역 톺아보기	이영주 센터장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 7.17.(목) 19:00~21:00	도시를 이야기하기	[Page2. 춘천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 춘천의 역사적 흐름과 도시 변화 - 도시재생 권역 내 조명할 역사, 문화 이야기 사례	허준구 소장 강원문화 예술연구소
3 7.24.(목) 19:00~21:00	도시를 취재하기	[Page3. 도시의 리포터, 무엇이 중요할까?] - 도시를 기록하고 취재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 - 취재 방법과 과정(준비, 태도, 섭외 등) 노하우	이나래 대표 소요프로젝트
4 7.31.(목) 19:00~21:00	도시를 취재하기	[Page4. 도시의 리포터, 어떻게 기록할까?] - 과제물 1:1 피드백 진행 - 주제별 원고 작성 노하우와 퇴고 방법	이나래 대표 소요프로젝트
5 8.7.(목) 19:00~21:00	도시를 관찰하기	[Page5. 도시의 자원을 발견하고 책으로 담아내기] - 도시의 일상 속 자원을 발견하고 큐레이션 하기 - 도시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전하는 로컬 매거진의 관점과 표현 방식 탐색	허태우 대표 피치바이피치
6 8.14.(목) 19:00~21:00	도시를 포착하기	[Page6. 사진/영상으로 담는 춘천 도시재생사업]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을 생생하게 담기 - 릴스, 숏츠 제작 실습	홍순혁 감독 스톤키즈
7 8.21.(목) 19:00~21:00	도시를 공유하기	[Page7. 기록들을 모아 발신하기: 출판과 전시] - 소집갤러리에서 담아내는 지역 기록물과 전시 - <지누아리> 프로젝트 사례와 결과공유회 엿보기	고기은 대표 소집 갤러리
8 8.28.(목) 19:00~21:00	도시를 재생하기	[Page8. 스트리트 리포터가 엮어낼 이야기들] - 출판을 위한 기획 회의 및 그룹별 네트워킹	윤 한 대표 소양하다







7월 10일,
마침내 스트리트리포터 두 번째 문을 활짝 열었어.
14명의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모였지.
육동한 시장님께서 환영의 인사로 우리를 맞이해주셨어.
강원연구원장 시절 기고했던 글들을 함께 나누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지.
우리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며
든든히 응원도 해주셨어.

> 우리 춘천은
> 골목마다 각자의 시간과 기억이
>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 이건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 우리가 함께 걸어온 삶의 흔적이고
> 지금, 이 도시를 만들어 온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
>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일은
>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연결하며,
> 도시를 생생하게 기록해 나가는 일입니다.
> 2개월간의 아카데미 과정과
> 도서 출판, 전시 프로젝트까지
> 여러분은 도시를 취재하고 전달하는 시민 리포터로서
> 특별한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
> — 육동한 시장님 인사 말씀 중에서

아카데미는 총 8개의 강의로 구성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일곱 분을 멘토로 모셨어.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어.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원을 발견하는 방법과,
취재하는 사람의 태도, 준비 과정, 인터뷰 노하우들을
배웠지. 영상, 책, 전시 등 기록을 발신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도 공부했어.
인터뷰, 숏폼 촬영, 출판기획서 작성 등
다양하게 실습해보고, 멘토와 피드백도 주고받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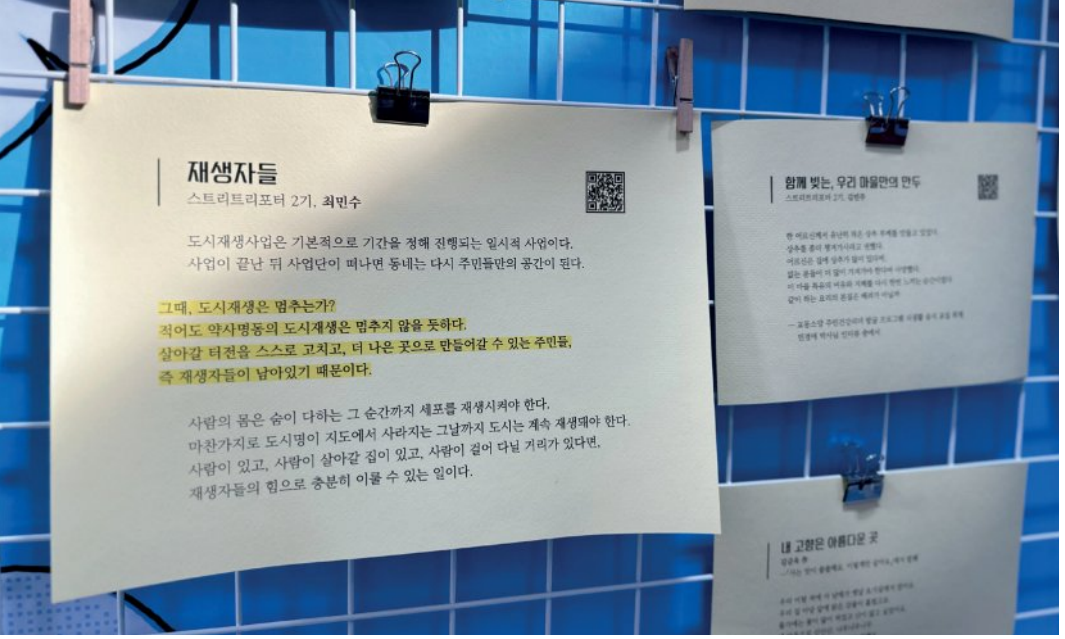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에는
스트리트리포터에게 소감을 물었었지.
리포터들은,
춘천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았다고,
이 분야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고 했어.
애정이 담긴 소감 발표에 마음이 따뜻해졌지.











스트리트리포터의 활동은
나에게도 이 씬에 머무는 이유를 찾게 했어.
내부에서 바라본 도시재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거든.
어떠한 벽에 갇혀, 도시재생의 너무 작은 부분만을
다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던 찰나,
스트리트리포터의 글과 말은 따스한 위로 같았지.

그러고 보니 그래.
도시 기록 사업을 왜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문장으로 잘 정리 되지 않았거든.
지금의 생각은 이래.
도시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 도시에 기꺼이 머무는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말이야.

우리의 기록은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에 남아있으니,
가끔 보러와.
자발적으로 기록한 이 글들에는
도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어.
이 글들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도시의 온기를
발견하길 바라.

No.163

약사명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작은 연결로 되살아나는 활력의 이야기

- 약사천 사람들
- 집수리도서관, 공유공간, 어린이작업실 및 약사천 일대
- 2025년 7월 ~ 11월
- 마을 안에서 기술과 일상, 방식을 나누는 약사천 커뮤니티



글/사진 이지나, 춘천사회혁신센터



약사명동의 중심에는 약사명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이 곳은 현재 춘천시 도시재생센터와 약사명동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은 춘천사회혁신센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며, 주민들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연결되고, 협력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약사명동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나누고, 배우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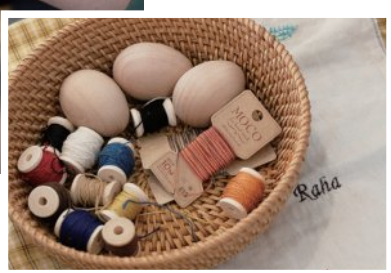




마을공유공간: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

약사명동 거점시설의 마을공유공간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함께 창작하며 삶의 작은 실험을 해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자기만의 손길로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내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드닝이나 바느질, 수선, 우드카빙 등 다양한 로컬 메이커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풀나풀'이나 '라우드' 같은 로컬 메이커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의 작업을 완성해가며 일상의 감각을 다시 찾게 해준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발견하고, 조율하며 일상 속에서 소중한 가능성을 찾아가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마을공유공간에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품들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은 의미 있는 작품으로, 주민들이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집수리도서관: 쓰임을 만드는 사람들



약사명동 거점시설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공간이 바로 집수리도서관입니다. 목공 교육이나 협동 작업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쓰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고친다거나,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서로 힘을 합쳐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목공방에서 팀별로 공동 작업물을 만들고, 각자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기회가 제공된답니다.
이곳에서의 활동은 주민들이 작은 시도와 만남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작업실: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창의적 실험



약사명동 거점시설의 어린이작업실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자연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제로웨이스트 교육과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실천을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환경을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작업실에서는 폐자재로 업사이클링을 하고, 친환경적인 요리법을 배우며,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며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일상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자연을 체험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도시재생과 사람들의 연결

약사명동 도시재생과 약사천 사람들 프로그램은 주민들만의 일상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을공유공간, 집수리도서관, 어린이작업실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들은 약사명동 주민은 물론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 서로 관계를 맺고 배움을 나누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로컬 메이커들 역시 약사명동 밖에서 이곳으로 와 자신들의 기술과 감각을 전하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사명동 거점시설은 지역 안팎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장이자, 서로의 경험과 역량이 확장되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은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 약사명동을 넘어 더 넓은 지역과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글 이지원 사진 이지원, 칠보공방 지니

No.164

춘천 지하도상가에서 피어나는
로컬 공예이야기

칠보 공방 지니

지하도상가의 ／ 색을 입히다



조용한 지하도상가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시선을 붙잡는 아담한 공예 공간, '칠보공방 지니'. 금속과 유리, 불이 빚어내는 오묘한 색채 속에서 최지영 대표님이 들려주는 칠보공예의 세계와 이 공간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춘천 오봉도

칠보공방 지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82-1 지하상가 마 51

월·화·수·토·일 12시-19시 (목·금 정기휴무)

0507-1330-5071

안녕하세요, ‘칠보공방 지니’님! 공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저희 ‘치읗치읗’ 독자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칠보공방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최지영입니다. 춘천 지하도상가에서 전통 공예인 칠보공예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체험 수업과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보공예는 금속과 유리, 불을 활용한 독특한 공예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느끼시는 칠보공예만의 가장 큰 매력과 앞으로의 가능성,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칠보공예는 금속과 유리, 불을 활용해 만드는 우리 전통공예 중 하나로, 한복과 잘 어울리는 장신구에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노리개, 쌍가락지, 비녀처럼 익숙한 전통 장신구들이 대표적이고 많은 분들이 나전칠기와 혼동하시지만 칠보공예는 금속 위에 유약처럼 돌가루를 올려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내는 공예라는 점이 다릅니다. 저 역시 처음 칠보공예에 매료된 이유가 바로 ‘즉각적인 결과’였어요.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는 밑작업과 건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칠보공예는 동판에 색을 올린 뒤 몇 분만 구워도 작품이 완성돼 바로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즉각성과 완성도가 교육 프로그램에도 잘 맞아 체험 수업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예라 앞으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나 클래스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후리트 기법’입니다. 후리트는 유리 알갱이를 뜻하는데 크기와 온도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달라져 초보자도 쉽게 다루고 원하는 색감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색 칠보처럼 물 조절과 형태가 까다로운 기법보다 실패나 실망이 적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이 기법으로 카드지갑, 키링, 노리개, 미니 보석함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마음에 드는 재료와 색상을 고른 뒤 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에요. 또 가마에서 꺼낼 때는 1000도에 가까운 고온이라 처음에는 예상과 다른 어두운 색으로 보이지만 식으면서 점차 맑은 본래 색을 띠게 돼요. 이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재미도 있어 참여하신 분들이 더욱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작품을 제작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나
창작 철학과 가치를 들려주신다면요?

작품을 만들 때는 '예쁨'과 '실용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작품과 제품의 경계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림을 그려 온 사람으로서 '작품과 제품이 같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저 역시 그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작품은 실용성보다 미적 가치와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해 예쁘게 만드는 것이고, 제품은 고객이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여 칠보를 알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시에서는 주로 제 작품을 선보이고 공방에서는 칠보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칠보공예와 가장 잘 어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제품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칠보공예 작가이자 공방 운영자로서 이 공간이
대표님께 어떤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이 공방은 제2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쉽지 않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칠보공예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출강을 통해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공방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과정 모두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공간은 아니지만 칠보공예를 알아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과
그 작품이 특별한 이유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은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춘천 오봉도」입니다. 왕 뒤에 걸리던 '오봉도'를 모티브로 삼아 춘천의 풍경과 상징들을 함께 담아낸 작품이에요. 양쪽에는 춘천을 상징하는 은행나무와 개나리, 까치, 호랑이를 배치했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요소를 모두 넣어 춘천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작품이라 톱질부터 칠보 작업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제가 이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느낀 감정과 앞으로의 삶을 진심으로 담아낼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춘천 지하도상가를 작업과 전시 공간으로 선택하셨는지, 이곳이 공예가에게 주는 영감이나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공방이 갤러리 상상언더 바로 앞에 있어 다양한 전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새로운 전시와 작품을 접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인근의 다른 공방 운영자분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예 관련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예가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지하도상가가 더욱 매력적인 공예 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읓치읓' 독자분들이 공예와 수공예를 더 즐길 수 있는 팁이나 공방 방문 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방 수업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당일 예약은 어렵지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일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끔 공방 앞을 지나가시다 즉석에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이 비어 있을 때는 언제든 체험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직접 원하는 색과 재료를 선택해 나만의 칠보공예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된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소품을 만들어 집을 꾸미거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평범한 공방을 넘어 일상 속에 감각과 영감을 불어넣는 작은 예술의 쉼터, '칠보공방 지니'였습니다! 매주 목·금요일은 휴무이니 방문 전 참고해 주세요. 금속과 유리, 불이 빚어낸 색채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공예의 세계를 만나고 싶다면 춘천 지하도상가 이곳에서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No.165

골목의 빛을 따라 걷다

글/사진 박민화

춘천에서 태어나 자라며 나는
언제나 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자라온 시절 산과 강, 댐은 늘 곁에
있었기에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치곤 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보니, 그 풍경들이 내게 영감과
위로를 주던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바라보던 풍경들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다시 춘천으로 돌아와 보니 익숙했던
모습들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떤 곳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만큼
바뀌어 있었고, 정겨 웠던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도 했다.
그런 공간을 마주할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스친다.
“그때 기록해둘 걸...”

그래서 다짐했다.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자.”

나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으로 향한다.



도시재생 구역의 길을 걸으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숨 쉬는 풍경을 만난다.
바랜 간판, 금 간 벽돌, 낡은 의자들은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채 서 있고,
그 사이에 들어선
작은 가게나 건물, 다양한 등은
과거를 지우기보다는
이어가려는 마음을 보여준다.

사진을 찎으며 나는
'빛'을 바라본다.
사진은 결국
빛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다.

춘천의 빛은
언제나 따스하게 골목을 비춘다.
아침 햇살이 하루를 깨우고,
오후 햇살은 담장을 물들이며,
저녁에는 가로등과 간판 불빛들이
골목을 채운다.
그 빛들 속에서 변화와 기억은
동시에 존재한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안의 삶을 지켜내고,
이어가며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어본다.
도시가 품은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
사진에 담아본다.








도시재생공유공간

No.166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삼척

2025. 9. 24.(수) ~ 9. 27.(토)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라지구
(삼척시 정하동 100 / 도시재생사업지내)



글/사진 정임정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강원 삼척 정라지구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등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주관합니다.

이번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아직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도시재생 현장에서 열린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삼척 정라지구는 오래전 조선소 부지가 폐업 후 방치됐다가, 지금은 도시·문화재생을 통해 동해안 최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을 추진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도시재생의 생생한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가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커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123개 자치단체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 부스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저희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스는 입구 바로 첫 번째에 자리했습니다.



춘천시 부스에서는 약사명동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주민들이 함께 만든 '약사장'과 '풍물커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운동·교동의 사업들을 전시했습니다. 사진과 리플릿, 성과품들을 가지런히 배치해 관람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꾸미고, 센터를 홍보 할 수 있는 룰렛 이벤트도 마련해 방문객들이 춘천시 사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사명동에서 개발한 '약사장'입니다. 약사리는 조선시대부터 약방과 한약사가 길가에 즐비했던 곳이어서 이번 장류 개발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약사장은 약리성이 가미된 장류라는 특별한 콘셉트로, 돼지감자 등 100% 국내산 재료를 방부제나 첨가물 없이 만든 자연 그대로의 장입니다. 시식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방문객들이 된장과 고추장을 맛본 후 판매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판로를 준비 중이라고 안내해 드리면서도, 판로가 개척되면 머지않아 시장에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사명동 풍물커피입니다. 드립백 제품으로,
에티오피아, 아바야 게이샤, 베트남 블루드래곤, 콜롬비아 메데진
총 세 가지 원두를 주민분들이 교육을 받으며 직접 로스팅하고,
패키징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커피를 시향해 보고 룰렛을 돌려 커피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스의 전체 벽면은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도와 시민 아카이빙
영상들로 조성하여 춘천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저희 부스를 떠나 다른 지역의 부스도 구경하며 이벤트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 곳은 홍천 부스입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동심마을' 콘셉트의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참 아기자기 귀엽죠? 부스안에서 사진을
찍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홍보내용도 기억에 남고,
사진으로 추억도 남고, 덤으로 선물도 챙기고! 1석 3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귀여운 인형들이 가득한 이곳! 고성 부스입니다.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목공 체험공간 '블랙우드'를 홍보하며,
인형뽑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고성에서 나온 문어를 귀엽게 캐릭터화 한'대무너즈'인형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과연 뽑혔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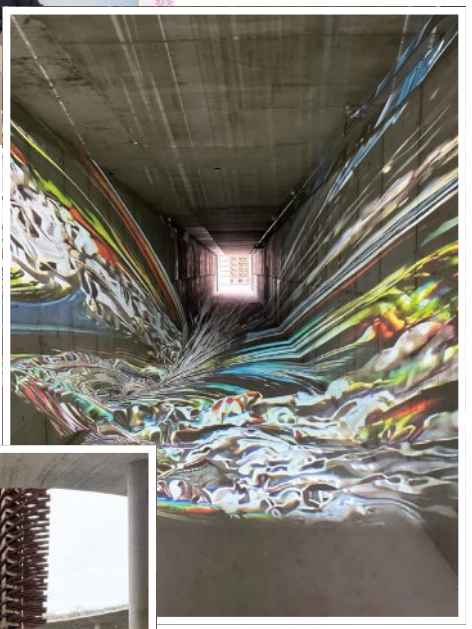


짜잔! 뽑았습니다.

고성의 재생사업도 알고, 귀여운 인형도 얻을 수 있어서 재미와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대전, 광명, 청주, 용인,
평창 등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하며 박람회의 분위기를
한 껏 즐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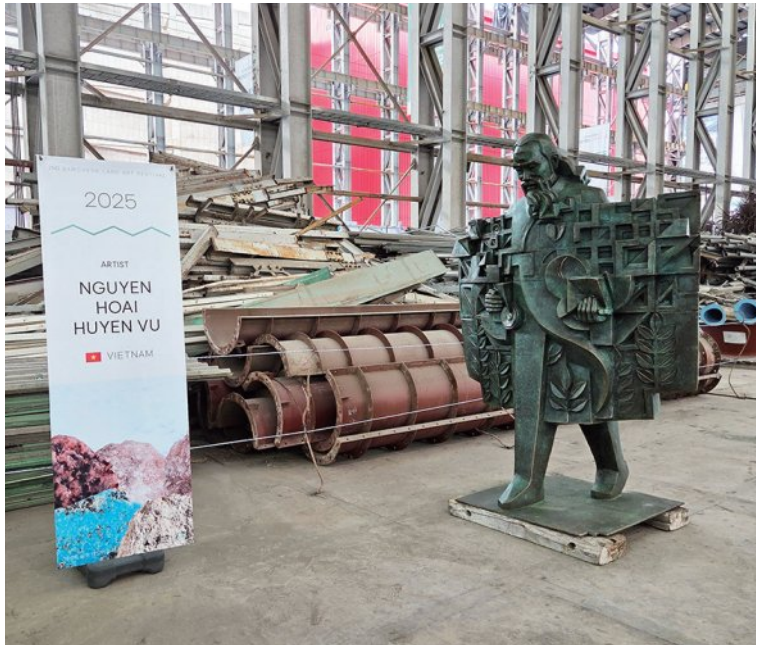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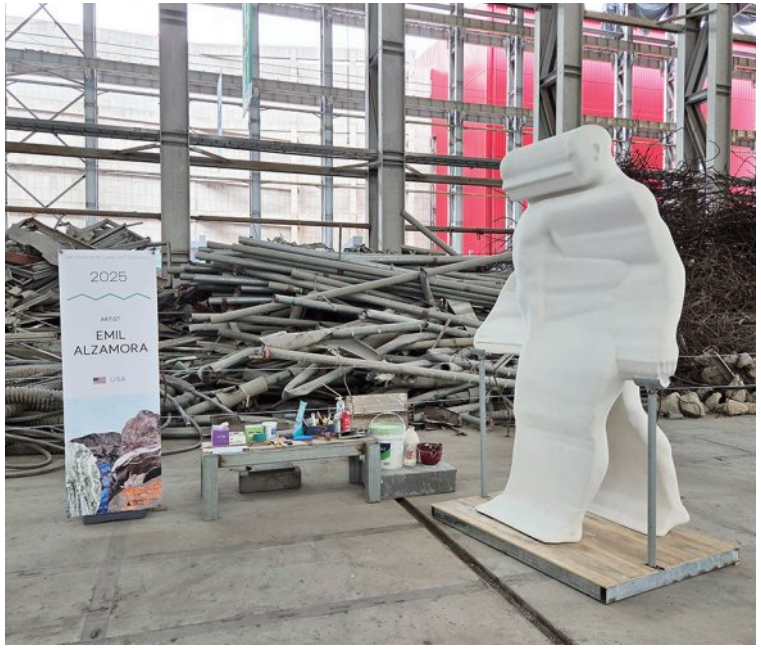






개막식은 24일 오후 3시 메인무대에서 열렸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영상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축사, 박상수 삼척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공식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협약체결식, 도시지역혁신 대상, 학술논문, 드론사진 공모전 시상식, 국제컨퍼런스, 합동 워크숍 등 다채로운 세미나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장 내 아트전시관과 미디어아트관은 관람객들에게 잠시 쉬어가며 감각적으로 도시재생을 접할 수 있게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삼척 도시재생을 알리는 창조관에서는 도시와 자연, 역사와 미래가 교차하는 삼척의 정체성을 시청각체험을 넘어 다감각적으로 표현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람회에는 총 300여 개 부스가 설치되어 공공혁신관, 산업혁신관, 입상작 전시존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 혁신의 성과와 가능성을 공유한 이번 행사는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도시재생과 산업혁신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의 삼척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새로 숨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였습니다. 앞으로 춘천을 비롯한 전국 도시재생사업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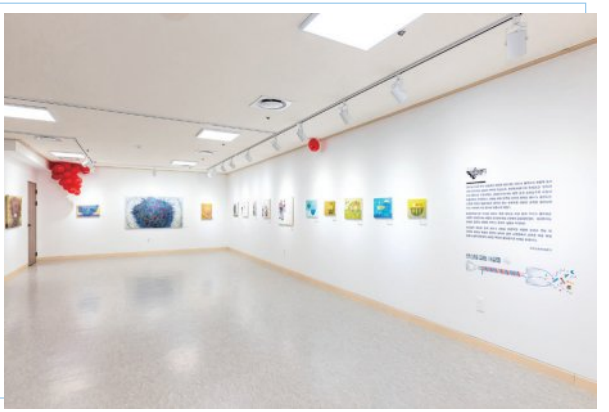
No.167

도시와 사람, 그리고 춘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그려본 우리의 도시 이야기



글/사진 이지원



갤러리 상상언더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의 집합일까요, 아니면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으며 저는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와 마주치는 풍경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고 형성하는 방식 자체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책 속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은 제 일상 속 풍경에도 스며들어 당연하다고만 여겼던 공간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매일같이 마주하는 골목과 오래된 건물, 그리고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은 저에게 또 하나의 생생한 답을 건넸습니다. 도시란 결코 거대한 구조물이나 화려한 개발의 성과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이라는 도시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책 속 사유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함께 엮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춘천의 얼굴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유현준 교수는 도시를 바라보는 눈을 단순히 건축이나 물리적 공간에 두지 않고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합니다. 그는 도시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설명하는데 건물과 도로, 제도와 정책 같은 물질적 기반만으로는 도시가 완성되지 않으며 그 위에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관계망이 얹힐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도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재생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요선동

춘천의 조운동은 화려한 명동 중심 상권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오래된 골목과 낡은 건물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조운동을 찾았을 때 낡고 쇠퇴한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며 마주한 풍경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주민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골목 어귀마다 작은 생활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낡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생동하는 일상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의 생활사가 건물의 균열과 간판의 빛바랜 글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사실은 도시를 단순한 공간이 아닌 '기억의 저장소'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율과 개발의 논리 너머에서 '사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효율성과 개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시의 복잡한 층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운동 도시재생 사업 또한 단순한 철거와 신축이 아니라 기존 공간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컨대 오래된 사진관이 카페로 변모하면서도 과거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살려 두는 방식, 혹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골목길 안내 프로그램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실험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한 동네의 고유한 풍경과 서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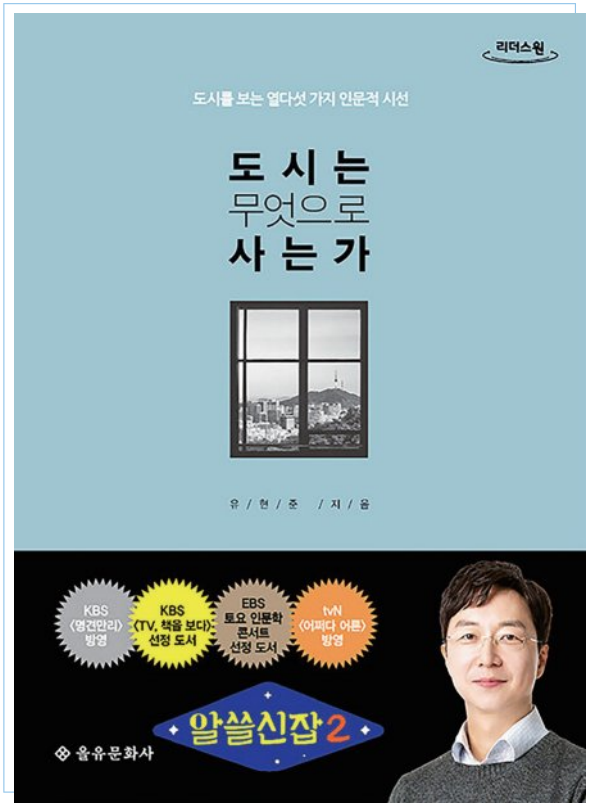
새명동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는 '연결'입니다. 주민과 청년, 세대와 기억, 과거와 미래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비로소 도시의 내면이 회복됩니다. 지역 상점에서 이뤄지는 교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회로를 만드는 일이며 마을 축제나 주민 참여 활동은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는 실질적 장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는 외형적 개발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도시재생이란 낡은 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일이 아니라 그 벽에 얽힌 삶의 결을 다시금 사회적 자산으로 엮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춘천은 다른 도시와 달리 호수와 산이 둘러싼 공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조직하고 관계망을 재구성하는가입니다. 조운동에서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간에 전시를 열며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을 연결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을 넘어 도시가 '사람을 매개로 성장하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조운동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삶의 철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간을 지우는 대신 이야기를 복원하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재생입니다. 낡은 건물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세대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결국 도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일이 도시재생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조운동의 풍경 속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문화적 실험의 무대가 되고 좁은 골목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경로가 되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춘천이라는 도시가 앞으로도 살아 숨 쉬게 할 원천이자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는 도시의 역사일 것입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 유현준
출판 을유문화사

강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18일 개최

- ☑ **주민 의견 반영해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사업 공모 추진**
- ☑ **관광객 감소·상권 침체 극복 위한 재도약 방안 논의**
- ☑ **강촌 고유 자원·자연경관 살린 맞춤형 재생 청사진 공유**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송곡대에서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강촌 일원 도시재생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시민을 비롯해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활동가 등이 참석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계획을 확정해 하반기 국토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며 공모 결과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강촌 도시재생을 시작으로 각 생활권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촌은 한때 수도권과 가까운 관광지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관광객 감소와 상권 침체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응해 강촌이 지닌 고유 자원과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지역을 재정비하고 도시 브랜드화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젊음의 성지' 강촌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강촌리 일대 다목적 야외광장을 조성하는 상상마당 사업을 추진해 최근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또 남이섬과 춘천을 잇는 선착장을 거점으로 방하리 관광지 개발을 준비 중이며 완공 시 남이섬 방문객 흐름을 강촌과 도심까지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강촌 피암터널 일원의 폐선부지와 교량하부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 현장 실사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강촌은 교통과 자연, 역사자원을 고루 갖춘 지역인 만큼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주목받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2025. 08. 26. 스포츠서울, 연합뉴스, 전국매일신문, 신아일보 등

강촌리 교육·관광 협력해 활력 시동

☑ **춘천시, 송곡대·강촌레일파크와 도시재생사업 MOU 체결**
☑ **행정·교육·민간 협력으로 강촌 활력 회복 기반 마련**
☑ **청춘 문화 상징 강촌, 재도약 시동**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25일 시청에서 송곡대(총장 왕덕양), ㈜강촌레일파크(대표이사 김찬용)와 함께 남산면 강촌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기획·총괄하고, 송곡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강촌레일파크는 상호 콘텐츠 홍보와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강촌 도시재생의 전환점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행정·교육·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 모델을 통해 강촌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교육·민간이 힘을 모아 강촌의 도시재생과 교육·관광 자원을 연계, 지역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때 청춘 문화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강촌은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쇠퇴를 겪어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도약을 모색하게 됐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젊음의 성지’ 강촌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강촌 일원 도시재생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촌리 일대 다목적 야외광장을 조성하는 상상마당 사업을 추진해 최근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또 남이섬과 춘천을 잇는 선착장을 거점으로 방하리 관광지 개발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강촌 피암터널 일원의 폐선부지와 교량하부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 현장 실사를 받기도 했다.



춘천시, 낭만 가득 버스킹 '틈새콘서트 시즌5' 개막

- ☑ 27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명동길·지하도상가 진행
- ☑ 보컬·댄스·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 주제 '가을 연가'
- ☑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일환, 원도심 문화 활력 기대

가을 향기 듬뿍 담은 버스킹 공연이 춘천 원도심에서 펼쳐진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27일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명동길과 지하도상가에서 버스킹 프로그램 '틈새콘서트 시즌5'를 진행한다. 보컬, 댄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틈새콘서트'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호흡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시즌은 '가을 연가'가 주제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 아래 가을 감성을 노래와 연주로 풀어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낭만을 전한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공연 영상을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공연팀을 선정한다. 참가자 모집은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행사 관련 문의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3-250-49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틈새콘서트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의미 있는 무대"라며 "가을의 정취와 함께하는 이번 시즌 공연을 통해 원도심이 더 매력적인 문화거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18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인스타그램〈춘천도시재생〉
https://www.instagram.com/uris_chuncheon/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카페〈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인스타그램〈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페이스북〈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인스타그램〈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instagram.com/vital_village_
페이스북〈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인스타그램〈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블로그〈조운동네〉
https://blog.naver.com/joundongne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소식지
치읓치읓

uris.chuncheon.go.kr

발행호 18호
발행일 2025. 10. 20.
창간일 2020. 10. 01.
발행인 신현만
편집자 노미영 이경은 성현아 정임정 이지나
기고자 이지원 박민화
디자인 내일기획
일러스트 콩줄리(@jyujyu_kong)
인쇄 내일기획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별관동 3층
033-245-5264
uris.chuncheon.go.kr

협조 춘천시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